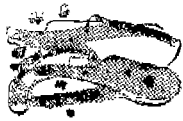


본회 주최, 대한가족계획협회 후원

지역사회 간호와 인구문제 세미나

- 기 간 : '73년 1월 22~26일
- 참가자별위 : 전국을 대상으로 한
임상간호원
보건간호원
양호교사
각각 30명씩



본회 간호업무부에서 주최하고 대한가족계획협회 후원을 받은 “지역사회 간호와 인구 문제” 세미나가 예정대로 1월 22일부터 본회 강당에서 개최되어 26일까지 5일간 임상, 보건, 학교간호 세분야가 한 자리에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.

전국에서 올라온 100여명 참석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으며 시종일관 성황리에 끝을 마치게 된 것은 참으로 만족스러웠으며, 첫날 본회 전산춘 회장의 주제강연은 더욱 이번 세미나를 성황리에 끝낼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었고 각분야가 주관하여 진행한 프로그램 등 마지막 날의 수료식이 있기까지 각 분야 나뉘대로

시간 \ 일자	1월 22일	1월 23일	1월 24일	1월 25일	1월 26일
	월요일	화요일	수요일	목요일	금요일
9.00-9.30	등 록	간 호 원 과 Communication (이성덕 선생)	학교 보건 행정의 실제 (문교부 장학사)	Team Care의 보다 새로운 개념 (서여수 선생)	간호사업의 당면 과제 (윤수복 중무)
9.30-9.50	개 강 식				
10.00-10.50	주제 강연 (전산초 회장)	간호의 관리 (이승희 선생)	양호교사의 이념과 업무의 실제 (김명호 선생)	지역사회가 요구 하는 보건간호사업 (이선자 선생)	평가회 및 수료식
11.00-11.50	"	물품 관리 (박정호 선생)	양호교사의 당면 문제 (박정중 선생)		
12.00-1.30	전 심	접 심	접 심	접 심	전 심
1.30-2.20	가족계획과 모자보건 (양재모 선생)	Panel 토의 (질적 간호)	그 물 토 의	가족 중심의 보건간호 (Role Play) (조원정 선생)	다 과 회
2.30-3.20	Group Dynamic (박준희 선생)	"	"		
3.30-4.20	"	총 결	총 결	총 결	총 결

진지하고 열심 있는 태도로써 임한 참석자들의 자세는 자랑할만 했다.

특히 이채로웠던 것은 세 분야가 자기들의 전문단체의 품안에서 서로 얼굴을 대하고 마음과 마음이 합동이 되어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를 위해 보다 좋은 간호를 해줄 수 있을가에 대한 서로의 문제점을 내세워 토론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겠다.

폐회식에서 전산초 회장의 “우리는 언제나 간호의 중심을 나 본인에게 두지 말고 항상 상대방에 두어야 한다”는 격려의 말씀과, 또한 “이 시간이 끝나 세 분야가 각각 헤어져 가더라도 내가 너를 필요로 하고 네가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항상 서로 동등한 필요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신을 잃지 말아 달라”는 대한보건간호원회 유순한 회장의 말씀은 한층 더 참가자들의 마음을 감동케 했다.

마지막으로 기념촬영과 다과회를 가지므로써 뜻깊은 세미나를 모두 끝마쳤다.

이 세미나를 마치기까지 애써 주신 이성욱 간호업무위원장 및 준비위원에게 감사 드리면서, 본지는 이번 세미나를 전반에 걸쳐 보고하므로써 이 자리에 참가하지 못한 회원여러분에게 널리 알리고자 한다.